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아 신학생들과 저희 가족들 모두 잘 있고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지난 7월,8월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8월 말까지 신학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7월 16일(토)에 학생들이 저를 위해 깜짝 송별회를 준비해주어 너무 놀랐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어우러져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신학교 생활과 여러가지 이야기들로 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7,8월에도 메데린 주변 지역에 학생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7월 24일(금) 메데린에서 한시간 떨어진 곳의 마을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신학생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8월 7일(일)에는 메데린에서 2시간 떨어진 라우니온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신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8월 12-14일에는 보고타에 가서 보고타 신학 졸업생들을 만나 교제하고 주일예배도 함께 드리고 보고타 농아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마지막 대면 강의를 하였고 매우 서운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지만, 앞으로의 신학생들 사역을 위해 더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생들이 콜롬비아에 빛과 소금같은 역할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철 선교사

졸업식 이전에 농아 신학생들을 불러 앞으로의 전도 계획과 개척 계획 등을 나누었는데 저희 학생들은 졸업 이후 메데린 지역 3곳과 시외를 나누어 교회를 개척하여 농아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장소를 빌려 졸업식 예배를 드리고 졸업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식 예배 및 졸업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 날 총 21명의 콜롬비아 농아인 학생들이 졸업식을 치루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졸업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복음을 전하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졸업식 후, 저녁식사도 함께하였습니다.

졸업식을 위해 특별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학생들과 학생 가족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8월 31일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약 7년 동안의 콜롬비아 선교 여정 동안 안전하게 몸 건강히 사명을 다할 수 있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함께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올해는 안식을 갖고 추후 중남미 단기 선교활동과 미국내의 농아 선교활동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 하시고 늘 강건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영육간에 강건 할 수 있도록
- 2.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잘 준비하고 인도해주시기를
- 콜롬비아 농아 신학생 졸업생들이 콜롬비아 농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김정철 선교사

신학 수업 + zoom 수업



송별 파티



김정철 선교사

메데린 근교 전도여행



라우니온 선교활동



김정철 선교사

신학 강의 종강 및 개척 계획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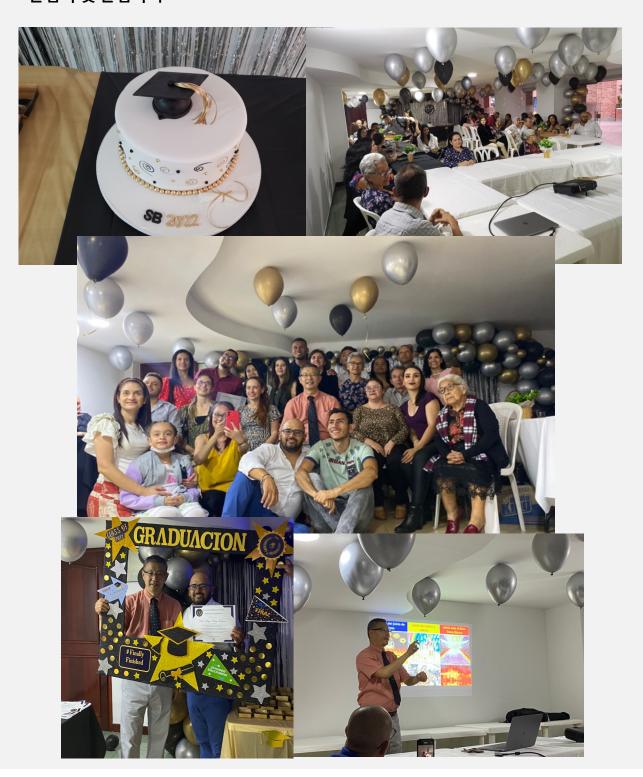


보고타 졸업생 모임 및 주일 예배



김정철 선교사

졸업식 및 졸업파티



김정철 선교사

졸업식 및 졸업파티

